

동국대 정각원 법회  
미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 “무념 무심 무주의 눈으로 세상 봐야”

《42장경》은 중국 최후의 한역 경전이다. 서기 67년경 한왕조 명황제의 초대로 중국을 방문한 인도의 스님들이 중국인들에게 부처님과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시편집 형식으로 구성된 경전이다. 이 경전은 초기 불교와 선불교가 함께 녹아 있는 법문으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국대 정각원 토요일법회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이 《42장경》 강연을 펼쳤다. 10월 6일~21일까지 3회에 걸친 법회에서 스님은 연기와 중도의 관점으로 초기불교와 선불교를 아우르는 설법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이번 강의는 무엇보다 저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출가해서 10대 때부터 간화선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항상 마음 깊은 곳에 간화선에 대한 뿌리가 박혀 있죠. 그런데 제가 동국대로 진학해 팔리어 경전 아함경 등을 공부하면서 초기불교를 접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초기불교 근본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선불교 대승불교를 폄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스님들에게 굉장히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선불교와 초기경전을 회통할 수 있는 《42장경》을 번역하고 설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42장경》은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 있어 출가 대중들뿐만 아니라 재가 대중들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구경》과도 많이 닮아 있죠.

자 그럼 서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존께서 도를 이루신 뒤 이와 같이 사유하셨다. ‘욕심을 여의고 적정(寂靜)의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수승한 일이다.’ 이렇게 큰 선정에 머무시어 여러 마장의 길을 조복 받으시고, 녹야원에서 사제(四諦)의 법 바퀴를 굴리시어, 교연어 등 다섯 사람을 건져 깨달음(證果)을 얻게 하셨다. 비구들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심이 있어 부처님께 추궁해 나아갈 것과 그쳐야 할 것에 대해서 여쭙면 세존께서 낱말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니, 듣는 사람들이 합장하고 공경하여 그 존귀한 가르침을 따랐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사유하고 의식 세계에 들어가 공부를 해 연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자애와 연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치셨습니다.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 도반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법을 전하기 위해 도반들을 찾아서 녹야원으로 떠났습니다. 부처님을

보자 도반들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절을 합니다. 광휘가 온 몸에 가득하고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가 감싸니 그 자리에서 법을 청하게 된 거죠. 이것이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뒤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안에서는 어떤 것 하나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습니다. 친밀함과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며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비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비의 상징인 팔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천절이 나의 종교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분께서는 너무나 따뜻하고 친밀한 기운이 몸에서 항상 풍겨나오죠. 불교가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바로 천절입니다. 우리는 따로 있지 않고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고 체득해 실천하면 아는 것은 지혜이고 실천하는 것은 중도행이고 자비행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공존해야 합니다. 두 수레바퀴처럼 말이죠. 연기 중도의 관점에서 42장경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을 여의고 적정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수승한 일’입니다.

자 다음은 ‘도는 스스로 높고 거룩한 것’이라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출가 사문은 욕심을 끊고 애착을 버리어 마음 바탕을 알아 부처님의 깊은 이치를 통달하여 무위법을 깨달아 안으로 얻는 바 없고 밖으로 구하는 바 없어서 마음이 도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한 업도 짓지 아니하여 생각 없고(無念) 지음 없으며(無作) 닦아 가지지도 않고 깨달아 얻지도 않아서 모든 지위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높고 거룩하니 이것을 이름 하여 ‘도’라고 한다.”

무위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욕심을 끊고 애착



미산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 토요일법회에서 10월 6일~21일까지 3회에 걸쳐 《42장경》 강의를 펼쳤다. 사진은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대중들.



미산 스님은... 1972년 백양사로 출가한 이래 선수행과 교학에 전념해왔다. 법암사와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간화선 수행을 하였으며, 인도와 미얀마에서 초기불교 선수행을 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석학과를 졸업한 후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불전언어인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문헌을 연구하여, 인도 뭍나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옥스퍼드대 동양학부에서 《남방불교의 철학사》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초기불교와 선불교 아우르는 최초 한역 경전 《42장경》 강의

### 친밀함 따뜻함 전하는 것이 불교 우리는 모두가 연결돼 있음 알아야 분별심 버리는 것이 곧 깨닫는 길

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음 바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애착은 생각과 감정에서 나옵니다. 마음 자체는 무위법입니다. 생사(生死)도 미추(美醜)도 없고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면 바깥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손연재 선수가 헤미 스님 트위터에 큰 대화를 앞두고 불안하다고 글을 남겼다고 하죠.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4.5년 명 모인 강연에 가려면 불안하다. 하지만 나를 보지 않고 마음을 바깥에 두니 관중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 강연이 잘 되더라고 말이죠. 기뻐하는 관중을 보며 마음을 크게 쓰는 것이 바로 나에 얽매이지 않고 바깥을 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수승한 공양의 공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천역의 삼세 모든 부처님께 공양

하는 것이 한 분의 무념(無念), 무주(無住), 무수(無修), 무증(無證)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금강경에서는 상에 머물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42장경은 《금강경》의 말씀으로 회통을 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라한과 아라한이 아닌 사람, 부처님과 부처님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다 상입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참모습을 볼 수 없죠. 이런 것이 다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은 원인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계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상에 머물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념 무심이며 《육조단경》에서 자주 나오는 선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끊임없이 외계의 사물을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이연기에서는 축이라고 하는데 축을 하면 금방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이 생기고 애욕이 생기죠. 애욕의 결과는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접촉할 때 고통이 있어서 무명축이 아닌 명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촉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연기적으로 연결된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착심에서 벗어나고 애욕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축은 무념(마음 고요) 무심(현안에서 있는 그대로 봄) 무주(마음이 자유로워 어디에도 머물지 않음)는 본래 마음자리와의 접촉입니다. 그 마음자리는

뒹굴 것이 없습니다. 이미 번뇌 망상 괴로움이 사라져 맑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자리입니다. 그 마음자리는 원래 깨끗해서 뒹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번뇌망상이 생기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깨어 있으면 명축입니다. 무념 무상 무주의 명축이 되면 바로 부처님을 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 바르게 가지면 그 자리가 부처님을 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42장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눈’을 읽어볼까요? “나는 왕후의 자리를 문틈으로 지나가는 먼지와 같이 보며, 금과 옥의 보석은 기와조각이나 자갈처럼 보며, 흰 비단 옷을 떨어진 누더기로 보며, 대천세계를 작은 겨자씨로 보며, 아누지의 큰 못물을 밭에 바르는 기름처럼 보며, 방편으로 여는 문은 상상으로 만든 보배로 보며, 위없는 진리를 꿈속의 황금과 비단으로 보며, 불도를 허공의 꽃처럼 보며, 선정을 우뚝 선 수미산처럼 보며, 열반을 밤낮으로 깨어있는 것으로 보며, 사되고 바름을 여섯 마리 용이 춤추는 것으로 보며, 평등을 참되고 한결같은 진실의 땅으로 본다. 세상의 변화무쌍함을 철따라 피고 지는 나무와 같이 본다.”

부처님의 눈은 이것저것 차별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무심 무주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이 법회를 통해 좋은 법문을 듣고 또 이를 실천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2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11월 18일까지

◆개강일시 : 2012년 11월 19일(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